



# 한동훈 이야기

편이 아닌 국민을 택한 사람

김경진

# 목차

1. 프롤로그 내편이 아닌 우리 나라를 택한 사람
2. 1장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3. 2장 총구 앞에 선 사람
4. 3장 대한민국, 내전의 문턱에서 빠져나오다
5. 4장 '배신자'라는 이름의 십자가
6. 5장 헌법을 수호한 죄로 광야로 쫓겨나다
7. 6장 대통령 부부에게 쓴소리한 유일한 사람
8. 7장 네 번의 좌천에도 굴하지 않다
9. 8장 수사 철학
10. 9장 한동훈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
11. 10장 인생을 건 수사
12. 11장 20년 뒤 돌아온 방어 논리
13. 12장 한동훈의 승부수
14. 13장 6조 원 전액 무효화
15. 14장 법무 행정의 뉴노멀
16. 15장 범죄와의 전쟁
17. 16장 인구절벽 대비
18. 17장 약자를 위한 법
19. 18장 1 대 180의 싸움
20. 19장 총선 불출마 선언
21. 20장 스스로 내려놓은 특권
22. 21장 전관예우 경계
23. 22장 새로운 보수의 언어
24. 23장 586 이후 세대교체
25. 24장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
26. 25장 AI 혁명과 국가의 역할
27. 26장 성공 신화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28. 27장 3·4·7 비전, 숫자에 담긴 희망
29. 28장 수동 성당 복사 한동훈
30. 29장 품 잡지 않는 '물저씨'
31. 30장 비틀즈에서 크라잉넛까지
32. 31장 중고거래 시장에 종종 나타나는 한동훈
33. 32장 모비딕, 오에 겐자부로
34. 33장 고양이와 컵라면

35. 34장 엘리베이터, 우산 그리고 의전
36. 35장 약자에 대한 시선
37. 36장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38. 에필로그 광야의 겨울, 그리고 다가올 봄

# 프로로그 내편이 아닌 우리나라를 택한 사람

2026년 1월 29일,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권 박탈을 의결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기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정치 평론가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13년, 변호사로 15년 넘게 법조계에 몸담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 4년간 일했고,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법과 정책을 연구합니다. 저도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특정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왜 당 지도부의결정과 달리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 자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장 먼저 "위헌"이라고 외쳤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해온 대통령을, 자신을 정치의세계로 이끌어준 그 사람을 거스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손을 잡고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190표 재석만장일치.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헌법을 지킨 여당 대표가, 바로 그 이유로 자기 당에서 쫓겨난 일 말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헌법 제1조를 압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동훈은 그날 밤, 이 조문을 온몸으로 지켰습니다.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했을 때, 체포 위협이 떠돌았을 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편이 아닌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배신이란 말입니까.

이 책은 한동훈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당대표 시절 소통의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 정치적 유연함이 부족했다는 지적, 저도 그런 평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1966년생입니다. 87년 체제의 탄생을 지켜본 세대입니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청춘을 보냈고, 그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12월의 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것인지.

한동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당 대표가 계엄을 지지했다면, 혹은 침묵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그토록 신속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유혈 사태 없이 헌정 질서가 회복되었을까요. 저는 그날밤 대한민국이 내전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그 벼랑에서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수많은 자료를 읽었습니다. 신문 기사, 인터뷰 전문, 국회 회의록, 법원 판결문. 한동훈이 검사로서 걸어온 길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수사한 이름들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자에게 엄격했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강강약약(強強弱弱)."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따뜻하게.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론스타 사건에서 그 철학이 빛을 발했습니다. 2006년 젊은 검사 시절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수사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법무장관이 된 그는 6조 원에 달하는 국제 중재 배상 판정의 취소를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6퍼센트의 승소 확률. 그러나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당에서 쫓겨나, 광야를 혼자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사람. 자기 이익보다 공공의 선을 택한 사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일을 한 사람.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

한동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그것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그가 가장 힘든 시점에 이 책을 내느냐고. 저는 답합니다.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라고.

한동훈이 승승장구할 때 칭송하는 것은 쉽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그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 말고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계엄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정치는 극단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강강약약"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정치. 편이 아닌 나라를 택하는 용기. 결과가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결단. 한동훈은 그런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당에서 쫓겨난 처지일지라도, 그가 보여준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책이 그 가능성을 기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잠시 잊어주십시오. 정치적 선입견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며, 그가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을 함께 경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주십시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2024년 12월 3일 밤, 내가 그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을 읽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2026년 2월 김경진

참고로 이 책은 저자 김경진이 한동훈의 언론 인터뷰, 대선공약등을 기초로 김경진의관점에서 분석하고, 김경진의 시각에서 지은 책 입니다.

한동훈과 협의하거나, 점검, 감수, 검토를 받거나 구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본인의 입장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럴 경우, 이 책의 서술은 김경진의 생각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1장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한동훈이 제명당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임 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한동훈을 당에서 축출했습니다. 죄목은 '해당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르게 기록할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한 대가였다고 말입니다. 비극의 씨앗은 정확히 1년 2개월 전에 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숨을 멈췄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북한의 도발이나 외교적 사안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중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44년 만에 헌정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헌법과 법을 다뤘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속에서 헌법이 규정한계엄의 요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동훈은 즉각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직을 마비시키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권한을 남용했지만, 이것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적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해 척결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한동훈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침묵을 깬 사람입니다. 그는 긴급 메시지를 타전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메시지 끝에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라는 직함을 분명히 박아 넣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헌정사상유례없는 선언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그는 국회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만류가 빗발쳤습니다. "지금 국회로 가면 위험합니다", "군이 진입하고 있습니다"라는 전언이 쏟아졌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하루 정도 은신해 계십시오." 한동훈은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속된 말로 '아, 나는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국회로 향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현장에 있어야만, 여당 대표라는 헌법적 무게를 가진 자신이 그곳에서 있어야만, 계엄군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밤, 어둠을 뚫고 여의도로 차를 달렸습니다.

## 2장 총구 앞에 선 사람

한동훈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전시와 다름없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헬리콥터 굉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 여당 대표인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전언도 여기저기서 왔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실 옆방까지 계엄군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체포 후 이송 과정에서의 사살 위협에 대한 증언까지 나중에 나올 정도로 상황은 엄혹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한동훈은 본회의장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파를 초월한헌법 수호의 문제였습니다.

본회의장 안에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독려했습니다. 텔레그램과 전화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계엄을 막아야 보수가 삽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결과,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결집했습니다. 만약 야당 의원들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면, 대통령은 이를 '반국가 세력의 선동'이라며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집권 여당 대표와 의원들이 함께한 '초당적 거부'는 어떤 명분으로도 덮을 수 없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피해 숨어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국회 본회의장 한복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시간 뒤에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재석 만장일치 가결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190표 속에는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18인의 여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표는 단순한 찬성표가 아니었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끔찍한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표결 직후, 한동훈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계엄령에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혼란에 빠져 있던 군과 경찰,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3장 대한민국, 내전의 문턱에서 빠져나오다

그날 밤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전'이라는 끔찍한 단어의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명령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국회가 즉각적으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화염병이 대통령실로 날아가고, 실탄사격이 발생하고, 군인과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그 벼랑 끝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편'을 드는 것은 곧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 감고 맹목적으로 대통령의 편에 섰다면, 그는 보수 강성 지지층의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편이 아닌 우리나라'를 택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보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피를 흘리면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훗날 그가 회고한 그날의 심정입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진영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한동훈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내란의 공포 앞에서, 국민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정치가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당연하고도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헌정 질서를 수호한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보수 정당이 '내란세력'으로 역사에 낙인찍혀 소멸하는 것을 막아낸 '구당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옹호 정당",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공격할 때, 한동훈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앞장서서 계엄을 막은 정당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숨어 있을 때, 여당 대표로서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하고 현장을 지킴으로써 보수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 정권을 끌어내리고, 국민의힘도 절멸했을 것입니다. 계엄을 막는 데 보수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의 인연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관통합니다. 검사 시절,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는 선후배였습니다. 밤을 새워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정의를 이야기했던 관계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건 수사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네 번의 좌천과 핍박까지, 두 사람은 고락을 함께한 '브로맨스'의 상징이었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독립운동가처럼 수사해온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믿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해 180석 거대 야당과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밤, 한동훈은 그 20년의 인연을 공적인 의무 앞에서 어쩔수 없이 끊어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는 오랫동안 서로 돕고 신뢰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걸 막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잘못된 것입니다."

한동훈은 '공'과 '사'의 경계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의리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20년 관계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날 이후, 그는 대통령과 단 한 번도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의리, 국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공직은 개인의 하사품이나 전유물이 아니며, 충성은 나라에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리보다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의리가 먼저입니다."

## 4장 '배신자'라는 이름의 십자가

계엄 해제 이후, 정국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동훈은 처음에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하며 파국을 막아보려 노력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동훈은 보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거센 비난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는 그의 이름이 찢겨나갔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그를 향한 저주로 도배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를 성토했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극우 유튜브들은 외쳤습니다. "배신자 한동훈." "좌파의 앞잡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차기 대통령감이라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에게들을 던졌습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신자라면,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수 정당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면, 보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세력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테니까요.

그는 자신의 몸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보수라는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내가 막지 않았으면 나라는 망했고, 보수는 멸절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기둥 하나를 붙잡고 버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보수의 가치가 '독재 옹호'가 아니라 '헌법 수호'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배신자론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가니 대구 상인분들도 계엄 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계엄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결코 '2시간짜리 해프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5장 헌법을 수호한 죄로 광야로 쫓겨나다

탄핵안 가결 직후인 2024년 12월 16일, 한동훈은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며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에서 그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 탓입니다."

그는 당의 분열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비극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음 아픈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퇴 후 그는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친윤계와 강성 지지층, 그리고 극우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그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한동훈을 '좌파와 결탁한 배신자'로 몰아갔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2026년 1월이 되었습니다. 광풍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추인의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막아내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탄핵에 찬성했던 그에게 당은 '제명'이라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반헌법 유령들의 마지막 망동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6명의 의원들,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헌법적·비민주적 제명입니다. 지도부는 사퇴하십시오." 대부분의 언론사설은 이를 "윤어게인 폭주"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선일보 평론은 "계엄 자폭으로 정권을 내주더니, 이번에는 당까지 자폭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한동훈을 쫓아내던 그날, 국민들은 비로소 누가 진짜 보수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당적을 잃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한동훈은 성 밖으로 쫓겨나, 거친 광야로 홀로 걸어야 합니다. 겨울밤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직함도 없이 추운겨울에 맨몸으로 광야에 나홀로 서 있습니다. 20년 동료에게 등을 돌려야 했던 그 밤의 무게가, 배신자라는 낙인이, 그리고 제명이라는 추방이 그의 어깨 위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나라가 가장 위태로웠던 그 밤, 가장 먼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줄 알면서도, 우리편이 아닌 우리나라를 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 6장 대통령 부부에게 쓴소리한 유일한 사람

2024년 1월 21일, 주말 오후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르던 그 시간, 한동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대통령실 유력인사.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가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한 목소리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사퇴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동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그가 던진 열두 글자가 용산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작 열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두 글자는 용산 대통령실이 목숨 걸고 지키려했던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한동훈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타협점을 찾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국민 보고 나선 길입니다. 할 일은 하겠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2일, 한동훈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퇴 요구설이 언론에 이미 번진뒤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입니다."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용산과 여의도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심'과 '한심'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마음과 한동훈의 마음. 한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의 거리가,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1월 23일, 충남 서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고, 한동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앞에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는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글북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의로 읽었습니다. 한동훈 자신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 전용열차에 동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봉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L 口의원은 "대화에 오해가 있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그는 '쓴소리하는 각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부하는 법을 몰랐고, 눈치 보는 법도 몰랐습니다.

의료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하나둘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증원을 주장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괄 증원을 원했습니다. 결국 2000명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4월 1일, 부산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뜨거운 현장에서 한동훈은 마이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2000명 숫자를 고집한 것은 아쉽습니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부도 2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이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것도 전국에 생중계되는 선거 유세장에서.

용산에서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왜 저러느냐"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이끈 후 지적한 부분을 바꾸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9월 6일, 한동훈의 중재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마침내 발 물러섰습니다.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제안했습니다. "10년 동안 1004명 증원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합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2025년 11월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미흡하고, 논리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감사원은 더 나아가 지적했습니다.

"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했습니다."

한동훈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에 앞서 너무 일찍 옳았을 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그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한동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지만, 그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를 이끌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최고위원 5인이 총사퇴했습니다. 지도부가 붕괴됐습니다.

12월 16일, 한동훈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 탓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밤 11시 45분.

깊은 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한동훈에 대한 제명 의결이었습니다.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2024년 1월 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전화를 받던 그날부터 이순간까지. 정확히 2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부부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의료 사태에서 고집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막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훗날 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분들은 대통령과 밥 먹고 다니면서 계속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직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뭐 하셨는지를 그분들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강약약(強強弱弱).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그것이 한동훈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 때문에 그는 가장 강한 자, 대통령과 그의 부인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각료가 됐습니다.

그 대가가 제명이라 하더라도.

## 7장 네 번의 좌천에도 굴하지 않다

2019년 7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 내 특수통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의 나이 마흔여섯.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정상에 오른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동훈은이 수사의 총지휘를 맡았습니다.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가족관련 비리 의혹. 수사 대상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거물이었고, 그 뒤에는 문재인정부 전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후배 검사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법의 원칙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불법은 불법이었습니다. 수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중에는 대법원에서 실형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한동훈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검 부장에서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지방으로 발령받는 것은 검찰 역사상 이례적인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좌천이었습니다.

첫 번째 좌천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동훈은 담담하게 짐을 쌌습니다. 부산행 KTX에 오르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0년 걸려 올라간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31일, MBC가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이 유착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조작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손잡고 야당 인사를 음해했다는 프레임은 강렬했습니다. 연일 그의 이름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두 번째 좌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찰 내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자리였습니다. 직접적인 수사나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한직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연수원에서 그는 연구보고서나 쓰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때 재벌 총수를 구속하고,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검사.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검찰은 한동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날, 수사 검사가 압수수색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사건은 압수수색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함께 있던 검찰 수사관들도 그 순간 한동훈이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검사가 현직 검사에게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독직폭행 피해자가 된 한동훈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가해 검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21일, 2심에서 "고의와 상해 입증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억울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징징대면 구차합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해도 징징대지 않는다. 부당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

2021년 6월, 세 번째 좌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언뜻 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보다 나아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에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수원에서 연수원으로. 검찰의 핵심에서 변방으로. 한동훈은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9일.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간 한동훈을 옥아댔던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조작된 의혹이었습니다.

누명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동훈은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번의 좌천 끝에 그는 검찰의 수장이 아닌, 검찰 위에 선 자리에 올랐습니다. 훗날 한동훈은 그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떤 교정력이 발생하느냐가 그 정권의 성패를 좌우해 왔습니다.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정의를 때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둠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장 수사 철학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이 후배 검사들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핵심은 단순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무슨 짓을 했고, 왜 그것이 잘못인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세 줄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핵심을 꿰뚫어야만 비로소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적 상황이나 권력의 눈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 앞에 공정한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인지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한동훈은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한동훈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강강약약(強強弱弱)'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불법에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삽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자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달랐습니다.

2003년, 서른 살의 한동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의 대기업과 맞섰습니다.

SK그룹 주식 부당거래 사건.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면거래를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재벌비리를 수사한다는 것은 당시에든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론의 관심, 정치권의 압력, 기업 측 로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수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한동훈은 흔들리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고,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 결과유죄가 확정됐습니다.

3년 뒤인 2006년, 한동훈은 또 다른 재벌기업과 마주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한동훈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련자들은 구속됐고,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7년에는 공직자가 타깃이 됐습니다.

국세청장 비리 사건.

국가의 세금을 관장하는 최고위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사건 역시 끝까지 추적해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수사한 대상은 특정 정파 세력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진영 무관,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하게."

이것이 그의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2015년, 한동훈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국제 경제 사건.

전 세계에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국제 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2015년 '올해의경제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무렵 그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가, 20년 뒤 대한민국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당시 한동훈은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형사판결은 훗날 6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승소를 이끄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3부에서 다루겠습니다.

한동훈의 수사 철학을 압축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은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악인의 정의입니다.

권력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그것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짓밟는 자가 악인입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남을 착취하는 순간, 그는 악인이 됩니다.

한동훈은 그런 악인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는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재벌이든 대법원이든, 불법을 저질렀다면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평가였습니다. 권력자들에게 그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자신은 그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하게."

그것이 그가 검사로서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불법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뒤, 한동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 수사가 불러온 폭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권력에 맞서는 검사. 강자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검사.

그런 검사는 언제나 권력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 9장 한동훈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는 서른 살에 재벌 총수를 구속했습니다.

마흔에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쉰 살에 비상계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대가로 좌천당하고, 폭행당하고, 누명 쓰고, 결국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눈 감으면 됐습니다. 고개 숙이면 됐습니다.

권력자들과 밥 먹으며 웃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좌천도, 폭행도, 제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강강약약(強強弱弱).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이 네 글자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그 반대로 삽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작아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커집니다. 윗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아랫사람에게는 갑질합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라고, 처세술이라고,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한동훈은 그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권력이 클수록 더 엄격하게. 지위가 높을수록 더 철저하게. 힘이 셀수록 더 당당하게. 그래서 그는 재벌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네 번 좌천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작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징징대면 구차합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부당해도 변명하지 않는다. 손해 봐도 징징대지 않는다.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

그것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 눈을 감을 것인가, 눈을 뜰 것인가. 약한 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옳은 일을 하고 손해 볼 것인가, 편한 길을 가고 득을 볼 것인가.

한동훈은 한 가지 답을 보여줬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칙을 지킨다. 쫓겨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강강약약.

이 네 글자가 그를 쓰러뜨렸고, 이 네 글자가 그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정의는 때로 긴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둠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써 나가게 할 것입니다.

## 10장 인생을 건 수사

2006년 어느 늦은 밤.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7층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리창에 어른거렸지만, 사무실 안의 서른셋 젊은 검사는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만쪽에 달하는 서류 몽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식은 믹스커피 종이컵이휴지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밤새 형광펜을 들고 숫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파고드는 사건은 '론스타(Lone Star)'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본부를 둔 이 거대 사모펀드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시절, 정부는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급히 매각해야 했고, 론스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자(減資)' 설을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감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외환카드 주식을 팔아치웠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론스타는 그렇게 떨어진 주가를기반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론스타 측은 "경영상의 판단이었고, 감자 계획은 나중에 철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법률 자문단이 있었고, 그들의 논리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의심 정황만 있을 뿐,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현대차그룹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속청 복귀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상부는 그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맡겼습니다. 그는 동료 이동열 검사(훗날서울서부지검장)와 함께 론스타 사건을 맡았습니다.

처음 기록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직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포장해도 죄는 죄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이득을 보게 놔둘 수는 없다.'

그는 일주일에 닷새를 검찰청사에서 잤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소파에서 눈을 붙이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기록을 뒤졌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

스스로 선택한 고행이었습니다.

그의 승부수는 론스타의 자문사였던 씨티그룹(당시 살로몬스미스바니)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한 강제 수사는 당시로서는 금기였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상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국제적 망신만 당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압수된 수만 건의 이메일 속에서 한동훈은 마침내 '스모킹 건(smokinggun)'을 찾아냈습니다.

론스타 측이 감자 계획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점, 실무자들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

'감자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감자를 검토한다고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감자계획을 폐기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 즉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그들의 오만에 대해 정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그는 끈질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임원들을 소환하고 논리적인 추궁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 폴 유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사이의 보이지 않는 긴장,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외압의 기미. 그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0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부산지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내려가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로 올라와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마침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범죄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론스타가 '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자본'임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동훈 검사는 짐을 정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이 밝혀내고 얻어낸 유죄 판결 하나가, 20년 뒤 대한민국을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송에서 구해낼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말입니다.

## 11장 20년 뒤 돌아온 방어 논리

2012년 1월,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소송. 그 규모를 실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6조 원이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생에게 10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수도권에 지하철 2호선 전체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론스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려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 그 바람에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봤다. 한국 정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거셌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미뤘습니다. 론스타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험값에 사들인 은행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매각 승인이 늦어졌다며 또다시 수조 원을 뜯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 자본'의 민낯이었습니다.

관료들은 당황했습니다. 로펌을 고용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합의해서 금액을 줄이자"는 패배주의가 관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상당한 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이미 있었습니다.

2011년, 젊은 한동훈 검사가 받아낸 그 '형사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국제법에는 'Clean Hands Doctrine'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손이 더러운 자는 법의 보호를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정당한 자만이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론스타는 주가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것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부당한 방해가 아니라, 범죄 수사를 시켜보는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에게 매각 승인을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습니다. 20년 전 한동훈이 찾아낸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이라는 이메일 한 줄이, 이제는 6조 원이라는 혈세를 지키는 방어 논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 내내 이 사건의 기록을 '인생의 짐'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이사할때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복사본을 챙겼습니다.

법무부나 대검의 어떤 보직에 있던 론스타 ISDS 대응을 물밑에서 지원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잘 아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했습니다. 현직에 남아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꿰뚫고 있는 실무자는 그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2015년,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으로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며 '올해의 경제검사'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어떤 언론은 그를 '독사'라 불렀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2022년 5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차 중재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청구액 6조 원 중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약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책임을 일부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은 달랐습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있었으므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0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이 설계하고 입증했던 '주가조작 유죄'가 국제 무대에서도 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시기, 일각에서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항소(취소 신청)해봐야 승산이 없다." "이자가 하루에 1억씩늘어나는데 빨리 갚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으로 희망 고문을 한다."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 아집으로 소송을 끌고 간다." 일부에서는 "패소하면 한동훈이 사비로 물어내라"는 저주 섞인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소 확률이 100%가 아니라도, 정부가 밤을 새워서라도 100%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가 피 같은 나랏돈을 가져가는 걸 어떻게 눈 감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증명해 낸 론스타의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차 판정에서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인정된 것을 '교두보'로 삼아, 절차적 위법성을 파고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년 전 밤을 새우며 찾아낸 증거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가 된 것입니다.

## 12장 한동훈의 승부수

2023년 8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서 하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소송 대응은 '과(課)' 단위의 소규모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았고, 체계적인 장기 대응은 어려웠습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국(局)' 단위로 격상시켰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 소송에 특화된 법률가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공직에 들어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국제법무국은 론스타 사건뿐만 아니라 엘리엇, 메이슨 등 이어지는 국제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ICSID 중재 판정이 뒤집힐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미만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최소 인용은 극히 희박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2,800억 원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확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는 실무진에게도 단호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그 두려움을 자신이 끌어안았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한동훈을 내세워 승산 낮은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한다면 대역죄인" 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자가 쌓이는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교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태평양이 과거론스타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불리한 의견을 낸 적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항소에 비판적이며, 압박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예재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서관급 직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라 불리는 핵심 요직입니다. 당시 "승산 없다"며 싸움을 포기하라고 했던 그가, 이재명 정부의 요직에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한동훈은 태평양 교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태평양은 과거 례스타를 상대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로펌이었습니다. 그는 "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실무진과 대리인단을 지켜냈습니다. 그해 8월, 한동훈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위를 깰 수 있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확신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성호 현 법무장관(당시 야당 의원)의 반응입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한동훈의 이 결단에 대해 "잘하신 일이고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국익을 위한 한동훈의 뚝심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승부수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굴복하여 수천억 원의 혈세를 바치는 치욕을 겪었을 것입니다.

론스타, 6조 원의 국익을 지킨 한동훈

## 13장 6조 원 전액 무효화

2025년 11월 18일, 마침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는 원 판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배상금 0원.

론스타가 처음 요구했던 46억 달러(약 6조 원)는 1차 판정에서 2억 1,650만 달러로 줄었고, 한동훈이 주도한 취소 신청 끝에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72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중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역전극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그날 오후 5시쯤,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 소송 결과를 직접 발표하겠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겼다는 것을.

결과가 발표되자, 그동안 한동훈을 비난하고 항소를 반대했던 이들은 침묵하거나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습니다. 현 정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패소했다면 그들은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니까 자기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그는 과거 항소를 반대했던 인사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공을 가로채려는 태도를 보며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염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로펌 교체를 압박하며 항소에 반대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 요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통령실의 핵심요직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정부 승소에 손가락을 얹는 건, 90분 내내 선수들을 옥하다가 경기에서 이기자 그라운드에 난입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듯한 기이한 광경입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가진 전문성, 원칙, 그리고 용기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2003년의 수사부터 2025년의 승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론스타라는 거약(巨惡)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6조 원.

0이 12개나 붙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글로벌 투기 자본이 대한민국을 '현금인출기'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승리가 확정된 날, 화려한 축하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돈은 저의 돈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인 법과 논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2006년 서초동의 밤부터 2025년의 승소까지, 20년을 이어온 그의 끈질긴 집념이 6조원이라는 거대한 국익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정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결단과 치열한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끝까지 싸운 한 사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과 국가를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웠습니다."

## 14장 법무 행정의 뉴노멀

2022년 5월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는 3만 3,400명의 법무부 직원 중 일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흔아홉 살의 한동훈이 단상에 섰습니다.

취임하는 한동훈의 넥타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훈민정음체로 "불휘기픈남ㅁㅁ"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패션으로 보았고, 누군가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한동훈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는 '동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장관이 3만 명이 넘는 부처 직원들을 '동료'라고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교정과 출입국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가 권력의 칼날을 쥐고있는 부처입니다. 그런 곳의 수장이 '위로'를 말했습니다. 칼을 든 손이 먼저 내민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국방부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의.

검사 시절 그가 늘 품어왔던 단어였습니다.

SK를 수사할 때도, 현대자동차를 수사할 때도, 국세청을 수사할 때도, 삼성을 수사할때도 그는 이 단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좌천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 결국 이 자리까지 그를 데려온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총리나장관 취임식 영상이 100만 뷰를 기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궁금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번 좌천당한 검사. 조국 수사의 핵심 인물. 검언유착 조작 사건의피해자.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

상처투성이의 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이 오히려 그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동훈은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십시오."

참모진이 물었습니다. "내일 바로요?"

"네. 내일 바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년 추미애 장관 시절 폐지되었습니다.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같은 범죄를 전담하던 조직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론스타 주가조작을 수사했던 바로 그 조직이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증권범죄 수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의도의 어둠은 그만큼 짙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여의도 저승사자의 귀환'이라 불렀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한동훈은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검사장들이 대거 물러났습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피의 숙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적재적소에 책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조직을 살리는 길입니다." 6월 14일, 그는 또 하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내부 문서에서 '님' 호칭을 쓰지 마십시오. '장관님'이 아니라 '장관'으로 쓰십시오."

작은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위주의와의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호칭하나가 문화를 바꿉니다. 문화가 바뀌면 조직이 바뀝니다.

한동훈은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높임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그해 여름, 한동훈의 얼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짬방이 만들어지고, 어록이 회자되고, 팬페이지가 생겨났습니다. '한동훈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정치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간층 반응이 좋은 쪽입니다.

신언서판과 도덕성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 관리를 뽑을 때 보는 네 가지 기준. 외모, 말씨, 글씨, 판단력.

한동훈은 그 네 가지 모두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곱 시에 출근했습니다.

퇴근은 밤 열한 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관용차 의전을 즐기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직접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관실 직원이 우산을 들어주려 하자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다 같이 젖는 겁니다."

그것이 한동훈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를 피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

비를 맞는 장관.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15장 범죄와의 전쟁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대한민국은 보이스피싱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잡지 못합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범인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합니다. 국내에 있는 건 현금수거책 뿐입니다."

"그거라도 다 잡으십시오."

2022년 7월,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동통신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동훈은 직접 지휘했습니다.

"피해금 환수에 집중하십시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는 것이 더 급합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전세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 학비였습니다. 그 돈을 되찾아주는 것이 진짜 정의였습니다. 그해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수율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피해가 발생했지만,

적어도 국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증권범죄 수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는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마주 작전, 리딩방 사기, 불공정거래 등 개인투자자들을 울린 범죄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한동훈은 수사팀에게 당부했습니다.

"개미들의 피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 돈을 빼앗아 간 사람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십시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도 출범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새어나가는 곳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조금 횡령, 허위 청구, 부정수급 등 국가 재정을

값아먹는 범죄들이 타깃이었습니다.

한동훈은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하는지,

국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세 줄로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못 하면 그 수사는 하지 마십시오."

세 줄의 원칙.

그것은 검사 시절부터 그가 고수해 온 철학이었습니다.

복잡한 법리와 전문용어 뒤에 숨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는

정의를 아니라 권력 행사에 불과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수사팀에게 늘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름기. 그것은 권력의 의중, 정치적 의도, 진영 논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의 순도를 높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2023년, 한동훈의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도, 여당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도 똑같이 다루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었습니다. 오직 법 앞에 평등하게.

일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리 편을 수사합니까?"

한동훈은 대답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하게, 그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강강약약(強強弱弱)이었습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그 원칙은 검사 한동훈의 신조였고, 장관 한동훈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의 길이라면 기꺼이 걸었습니다.

## 16장 인구절벽 대비

2022년 5월 28일, 한동훈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민청? 한국에서? 단일민족을 자부해 온 나라에서? 한동훈은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출생아 수 27만 명. 2021년 26만 명.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한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는 숫자를 읊었습니다. 차가운 숫자 뒤에는 뜨거운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00만 명입니다. 이 중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체류질서가 무너지면 이민 정책 자체가 흔들립니다. 유연한 이민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입니다."

유연한 이민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이 문장은 그의 인구와 국가운영 철학을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되, 질서 없이 열지는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환대와 원칙의 균형이었습니다.

2023년, 법무부는 E-7-4 비자 쿼터를 확대했습니다. E-7-4는 숙련기능인력 비자입니다. 제조업, 농업, 어업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동훈은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불법체류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원칙 없는 관용은 혼란을 부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분들을 보호하려면, 불법으로 들어온 분들에게는 엄정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민을 늘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다."

한동훈은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산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장, 농장, 어시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10년 일했습니다. 이제 고향에 집도 지었습니다. 부모님도 편하게 사십니다. 한국에 고맙습니다."

한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의 동료 시민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세금 내고,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같은 땀, 같은 세금, 같은 하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外廳)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출범식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모두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청 설립을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이 있었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한동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10년, 20년 뒤일 것이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인구절벽을 넘어 살아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정치의 의미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당장의 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수확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뿌려야 합니다.

## 17장 약자를 위한 법

2022년 8월 17일, 한동훈은 법안 하나를 들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강화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스토킹 피해자들은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가해자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명령서가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스토킹은 살인의 전 단계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해 11월, 또 하나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이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당시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었습니다. 13세 아이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최대 처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허점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조직폭력배들이 청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차피 처벌 안 받으니까 네가 해"라는 식이었습니다. 법의 그늘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냐." "교화가 우선이지 처벌이 우선이 아니다." 한동훈은 답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세 소년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11세 소녀의 부모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한동훈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위해.

제시카법 추진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시설 근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 플로리다에서 9살 소녀 제시카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동훈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구치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재소자를 관리하고,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탈옥을 막는 일을 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처우는 열악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였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취임 8일 만에 한동훈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이 세 가지를 해결하겠습니다." 6월 4일, 교정직 공무원 보수 및 복지 개선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위험수당 인상,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동훈은 교도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정공무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한 교정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이렇게 장관님과 밥을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한동훈은 웃었습니다.

"저는 장관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같은 공직자 아닙니까."

10월 28일,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한동훈은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소자도 사람입니다.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는 재소자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출소 후 취업 연계, 사회복귀 지원금 인상. "범죄자를 왜 도와주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답했습니다.

"재소자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재범을 막는 것이 피해자를 줄이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되, 가해자가 약자가 되지 않도록. 악순환을 끊는 것. 그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 응징이 아닌 재건.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 18장 1 대 180의 싸움

2023년 1월 어느 날, 한동훈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슬자리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떠돌았습니다.

한동훈이 젊은 여성들과 슬자리를 함께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접대를 받았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사퇴하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방송에서, SNS에서 한동훈을 맹공격했습니다. 유시민 전이사장도 방송에 나와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물매가 쏟아졌습니다. 한동훈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걸겠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숫자 앞에 무너졌습니다. 진위가 밝혀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도적으로 한동훈을 음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한동훈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입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입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2023년,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정치 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168석. 국민의힘은 108석. 수의 싸움이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산을 두드리면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21일, 예상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그날 밤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공공선(Common Good)의 힘이다."

진영을 초월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숫자의 벽을 양심이 허물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1 대 180의 싸움을 치렀습니다. 거대 야당 전체와 맞섰습니다. 여당 일부로부터도 "왜 싸움을 벌이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공선을 위한 싸움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해야 합니다. 지더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것. 그것이 한동훈의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9개월의 임기였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증권범죄수사단 부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이민청 설립. 스톡킹처벌법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강강약약의 원칙.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한동훈은 장관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더 큰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는 또 1 대 180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1 대 190의 싸움을.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결과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동훈이었습니다.

## 19장 총선 불출마 선언

2023년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한동훈은 당의 원내대표 즉 당대표 권한대행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당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당은 지도부 공백에 빠졌습니다. 당내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당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관님, 당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한동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직언, 의료 사태에 대한 쓴소리, 명태군 게이트에 대한 문제제기. 그는 이미 '불편한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그 균열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닷새 뒤인 12월 26일, 온라인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했고, 찬성 627명, 반대 23명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임명안이 가결되었습니다. 96.46%의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동훈이 취임 일성으로 꺼낸 말은 당 안팎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대표에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의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언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한 뒤 당대표로 복귀하거나,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비례 1번, 혹은 당선이 유력한 수도권 지역구 공천은 당연한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하겠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선 직행'을 노린 계산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오히려 발이 묶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요.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여의도 정치의 문법을 모르는 정치 초년생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승민전 의원은 "힘지나 접전지에 출마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날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당후사(先黨後私)보다 선민후사(先民後私)입니다."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는 정당 정치인들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은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 격언마저 뒤집었습니다. 당보다 국민이 먼저라고요.

정당인으로서의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곳이 여의도가 아니라 여의도 밖의 국민들임을 분명히했습니다.

불출마 선언 뒤 그의 일정은 뻑뻑해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국을 돌았습니다. 접전지를 찾아다니며 후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당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어떤 후보는 울컥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자기 당선보다 당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여의도에서 흔히 듣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권력의 과실을 손에 짚 수 있는 사람이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선언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여의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이자, 새로운 정치 문화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 20장 스스로 내려놓은 특권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 한동훈은 공천 과정에서 또 한 번 당내를 긴장시켰습니다. 그가 내건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공천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현행법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의정 활동의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종종 범죄 혐의를 받은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국민들사이에서 '무소불위의 금벳지'라는 비아냥이 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후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일부 후보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우리만 그래야 하느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불체포특권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도 주장했습니다.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세비(歲費) 반납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의 일부를 돌려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고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국민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물론 이런 제안들이 모두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고,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 개헌 사항이었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비판자들은"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 던진 질문은 유효했습니다. 정치인은 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왜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가? 한동훈이 던진 화두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선출된 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국민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 21장 전관예우 경계

2024년 7월, 당대표 후보 토론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한동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공직이 끝나면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로스쿨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그의 오래된 신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전관예우(前官禮遇). 검사나 판사 출신이 변호사로 전직한 뒤 과거의 인맥을 활용하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법조계의 고질적 적폐로 지목되어 온 문제입니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부터 전관예우를 경계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전관예우 변호사와는 만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접대도 받지 않고, 선물도 받지 않고, 청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에서 그는 '공사 구분이 유별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원칙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융통성 없음이라 비난했습니다. 검사장급 고위직까지 올랐으면서 전관예우의 혜택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한국 법조계에서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연봉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배들, 동료들과의 관계가 사건 수임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한동훈은 그 길을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면 변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정치인 한동훈의 퇴로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에서 밀려나더라도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먹고사는' 길은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배수진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물었습니다. 정치인이 퇴로를 차단하면 더 위험하지 않은가? 뒤가 없는 사람은 더 필사적으로 권력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한동훈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뒤가 있어서 쉽게 물러나는 정치와, 뒤가 없어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중 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는 정치입니까?"

그의 검사 시절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전직 고위 검찰 간부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후배 검사가 선배의 체면을 세워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에게는 '독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은 칭찬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전관예우를 경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동훈은 검찰이라는 권력 조직의 내부자이면서도 그 관행에 동화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고립시키기도 했지만, 또한 다른 종류의 신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 22장 새로운 보수의 언어

한동훈이 정치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료 시민(Fellow Citizens)"이라는 호칭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유권자를 부르는 말은 대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를 때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은 낯설었습니다.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를 의식적으로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료 시민입니다."

이 표현에는 그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걷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Jon Favreau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추구했던 것과 같은 철학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이끄는 영웅이 아니라, 국민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대변인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은 '운동권 청산'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운동권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민주화 운동의 유산을 독점하면서 새로운 기득권이 된 세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결탁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운동권'은 오랫동안 도덕적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역사적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그 유산이 새로운 특권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보수의 전통적 레토릭과 달랐습니다. 과거의 보수는 '반공'과 '성장'을 앞세웠습니다. 반공은 냉전 시대의 유산이었고, 성장은 산업화 시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은 끝났고, 고도성장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그 언어는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다른 언어를 찾았습니다. 그는 '공정'을 말했습니다. 그는 '상식'을 말했습니다. 그는 '기회의 평등'을 말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원래 진보 진영이 선점해왔던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것을 보수의 언어로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공정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핵심이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 그것이 보수가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의 새로운 언어가 보수 지지층 전체에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위장한 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도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오래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수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낡은 언어로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5 총선 패배와 성찰

2024년 4월 10일 밤. 개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참패였습니다.

한동훈은 여의도 당사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 참모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2020년 총선보다 더 나빴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 오전, 한동훈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짧고 담담한 회견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남 탓도 없었습니다.

그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상대방의 비방 전략을 비난하거나, 언론의 편파 보도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패배 후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의례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곧이어 변명이 따라붙고, 다른사람들에게 책임이 분산됩니다. 한동훈의 사퇴 회견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거기서 멈췄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태도를 '너무 쉽게 물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패배한 장수가 할 일은 변명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후임자의 몫입니다."

그는 그 후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칩거라 부를 수도 있고, 성찰의 시간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석 달 후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 그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가 2025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치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4월의 패배는 한동훈에게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필요한 상처였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인은 승리에서 자만을

배우고, 패배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한동훈이 그 패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앞으로의 행보가 말해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패배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한국 정치에서 드문 장면을 남겼습니다.

"정치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23장 586 이후 세대교체

2024년 봄, 여의도의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뒤로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국회의사당의 둥근 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돔 아래에서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거대한 흐름이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586 운동권'이라 불리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 돌멩이와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동안, 그 '용기'는 어느새 '특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화라는 훈장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도덕적 우월감은 타인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오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독재에 맞서 싸웠다고 해서, 아들이 영원히 그 공로를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 1세대의 헌신이 아무리 위대했다하더라도, 그것이 2세대, 3세대에게까지 무한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1973년생, 이른바 'X세대'입니다. X세대는 독특한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산업화의 혜택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풍요를 경험했고, 청소년기에는 민주화의 세례를 받으며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념보다는 실력을, 명분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1992년 봄, 서태지의 등장을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기성 평론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지만,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대교체는 어느 한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그가 서태지를 호출한 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기존 질서와 문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웠던 그 문화적 충격을 정치의 영역에서 재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서태지가 "난 알아요"라고 외치며 뮤직비디오의 문법을 바꾸었듯이, 한동훈은 "난 다릅니다"라고 선언하며 정치의 문법을 바꾸려 합니다.

한동훈이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차림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대신,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구체적인 법안을 고민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는가'라는 과거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현재의 실력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86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주축인 86 이후 세대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세대에게 보내는 정중한 작별 인사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듯, 한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햇불을 건네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의 요청입니다.

그는 IMF 외환위기를 사회 초년생 시절 온몸으로 겪으며 "고도 성장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세대입니다.

1997년, 갓 검사가 된 청년 한동훈은 TV에서 흐르는 '금 모으기 운동' 뉴스를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제까지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되는 것을 목격한 그 충격. 그것은 그에게 '어떤 성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맹목적인 이념 투쟁 대신, 당장 먹고사는 문제,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과 같은 실질적인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는 2030 청년 세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과거 고도성장의 기회가 사라진 시대에, 청년들을 착취하는 연금 개혁이나 포퓰리즘정책을 거부하고,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것에 정치의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586 세대가 지나온 세상은 '정치 과잉'의 시대였습니다.

정치과잉의 부작용이 모든 것을 진영 논리로 나누고,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싸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너 누구 짝었어?"라는 질문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나라. 이것이 586 정치가 남긴 썩썩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열고자 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는 상식과 공정, 그리고 실용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 정치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지 않는 세상.

한동훈의 등장은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장의 규칙을 바꾸는 '시대 교체'입니다. 운동권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진영 논리의 경기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미래와 과학, 그리고 시민의 상식이 숨 쉬는 새로운 경기장을 짓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념의 시대가 저물고, 실력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 새로운 아침을 여는 문지기입니다.

## 24장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대한민국은 칠혹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TV화면 속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 순간, 많은 국민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 땅에서군대가 국회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밤, 수많은 부모들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나라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것은 1980년 광주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한동훈 대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외치며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의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바로 '1987년 체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였습니다. 1987년, 우리는 독재를 몰아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을 쥐여준 것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구조. 이것이 바로 '87년 체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국세청장을 임명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수천 개의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에 술에 취해서도, 분노에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를 '87년 체제의 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절제의 실종' 에서 찾았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87년 헌법 체제 내내 탄핵이나 계엄 조항은 있었지만,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쓰지 않는다는 '절제'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그 독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치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청와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상대를 철저히 짓밟으려 합니다. 반대로 지면, 다음 선거까지 5년 내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외치고 거리에 나섭니다. '계엄'과 '탄핵'. 이 끔찍한 단어들 이 서로 번갈아 가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비극적인 도돌이표. 이것이 우리가 지난 30년간 목격해 온 슬픈 자화상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탄핵까지. 우리는 민주화 이후 37년 동안 세 번의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경고등입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야당의 30번에 달하는 습관성 탄핵 소추는 87년 체제가 더 이상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가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내전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동훈은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탄핵이라는 핵버튼을 마구 누르는 시대"라고 규정하며, 이대로라면 공수교대만 반복될 뿐 국민의 삶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합니다.

"이제 87년 체제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타협하고 대화하는 정치를 만들자는 호소입니다. 그는 "87체제의 문을 닫는 문지기"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사상 스스로 권력을 줄이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조지 워싱턴이 3선을 거부하고 물러났을 때,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의결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가 구상하는 제7공화국의 청사진은 명확합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여 다수당의 독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여,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함으로써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가 입법부를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의 개헌론은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기 위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의 논의와 차별화됩니다.

그는 "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바꾸자는 식의 개헌 논의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줄이겠다"는 실천적 약속으로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개헌은 권력자들의 야합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수 없도록, 다시는 어떤 다수당도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번에도 탄핵당하겠지?"라고 냉소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그것이 한동훈이 꿈꾸는 제7공화국입니다.

한동훈은 그날 밤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공포는 언젠가 또다시 우리 아이들을 덮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괴물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공수교대 하듯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내전 상태를 끝내는 것. 그것이 한동훈이 짊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한동훈,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다

## 25장 AI 혁명과 국가의 역할

18세기 영국,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근육 힘으로만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체력적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차 산업혁명, '체력 극복'의 혁명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을 받아들인 공장은 번창했고, 손으로 베를 돌리던 장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나라들은 식민지가 되었고, 변화를 이끈 나라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기술 혁명 앞에서 종립은 없었습니다. 올라타거나, 밀려나거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AI) 혁명입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지력 극복'의 혁명이라고 정의합니다.

과거의 기계가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신했다면, AI는 인간의 두뇌를 확장해 줍니다. 우리가 평생 걸려도 다 읽지 못할 자료를 AI는 단 몇 초 만에 분석합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난제를 AI는 순식간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의대에 가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공부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10년 후에도 의사가 지금처럼 진단을 내릴까?" AI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암을 발견하는 정확도가 이미 인간 의사를 넘어섰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번역가... 지금까지 '안전한 직업'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말합니다.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가 3년에서 5년 안에 올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영원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즉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동훈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국가는 인프라를 깔아주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세운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철소를 지어서 뭘 만들건데?"라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속도로가 있었기에 자동차 산업이 일어났고, 물류가 흘렀으며, 대한민국경제가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있었기에 현대조선이 배를 만들고, 삼성이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입니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입니다. 한동훈은 정부가

나서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우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 부담이 큰 일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 원전을 확보했습니다. 전기가 곧 AI의 피, 국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탈원전 논쟁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작은 정부'라는 보수의 전통적 도그마를 깨고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현재의 글로벌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총력전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자국 기업을 위해 발 벗고 뛰는데, 우리 정부만 뒷짐 지고 규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일(Dirty Work), 어려운 일은 국가가 도맡아 해야 합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52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 굴기를 선언하며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뒤늦게 반도체 부활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시장에 맡기자"고 물려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제에 대한 그의 생각도 확고합니다.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단 규제부터 하려 들었습니다. 드론이 나오면 "어디서 날리면 안 된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여기선 달리면 안 된다", AI가 나오면 "이건 쓰면 안 된다". 규제 공무원들의 첫 번째 본능은 "안 돼"입니다. 왜냐하면 "돼"라고 했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AI 경쟁은 속도전입니다. 뛰어가기도 바쁜 선수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은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려 합니다. 그는 "AI 인프라 구축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에 50조 원 등 총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도 그는 과감합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데이터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개인정보규제가 강한 EU 등도 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AI 인재에게 병역특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AI 병역특례는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AI를 연구하는 한국인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 중 상당수는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2년동안 AI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2년이면 AI 세계에서는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 기업을 위해 일합니다. 대한민국이 키운 인재가 대한민국의 경쟁국을 위해 일하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AI 기술을 지배하는 나라가 미래의 패권을 잡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계의 블록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AI 경쟁 시대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이 갈 것인가. 미국 일본과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가. 한동훈의 답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 중 하나는 한미일 블록에 제대로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체제는 물론 경제도 블록화된 국제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1950년,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 섰기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북한 편에 섰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AI 시대의 블록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명사적 선택입니다.

그는 지금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의 첫 샵을 뜨고 있습니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줄 알았을까요?

2025년, 한동훈이 AI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가는 순간이, 50년 후에는 "그때 그 결정이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 그리는 'AI 시대의 국가 모델'입니다.

## 26장 성공 신화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한동훈의 공약을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젓더미가 된 전쟁터 위에서 우리는 두 번의 결정적인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짐바브웨보다 못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희망 없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도약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첫 번째 도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농민들에게 '내 땅'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일한 만큼내 것이 된다"는 희망은 국민들을 깨어 있게 했고, 교육열을 폭발시켰으며, 자본주의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주춧돌을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으로 '내 땅'이 생기자, 농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땅에서 나온 쌀로 내 자식 공부시키겠다." 이 희망이 대한민국 교육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약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이었습니다.

가발이나 만들어서 팔던 나라가

제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을넘어 선진국의 문턱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에 대해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는나라가 제철소를 짓겠다니, 미친 짓"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철강회사들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1973년 첫 쇳물을 뽑아냈고, 20년 만에 세계 1위의 철강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미친 짓'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은 '제3의 기적', 즉 '제2의 도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력해도 안 돼"라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뛰어오를 것인가.

한동훈은 주저 없이 도약을 선택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침체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AI 혁명의 파도를 타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길입니다. 한동훈은 묻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맨손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도전 정신을 이어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제2의 농지개혁'과 '제2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과거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AI와 첨단 기술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자는 것입니다. 농지개혁이 국민에게 '자산'을 만들어주었듯이,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화학공업이 우리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여 기술 패권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롤모델로 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력입니다. 다만, AI 시대의 변화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그는 5년이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5년은 너무 깁니다. 1년, 2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워룸(War Room)' 상황실장이 되어 경제 전쟁을 지휘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마다 수출 상황판을 점검했듯이, 한동훈 대통령은 매일 AI 기술발전 현황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전쟁이고, 대통령은 사령관입니다. 뒷집 지고 보고서나 받아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전선에서 직접 지휘하는 대통령을 약속합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과 연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역량을 전국 5개 거점도시로 전략적으로 분산·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거점에 '규제제로특구'를 지정하고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중화학공업 단지를 조성해 산업화를 이끌었던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의 21세기 버전입니다.

울산이 자동차와 조선의 도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미가 전자 산업의 메카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배치하고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이 전략을 AI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려 합니다. 어느 도시는 AI 반도체의 허브로, 어느 도시는 바이오 AI의 중심으로, 어느 도시는 자율주행의 테스트베드로. 대한민국 전체를 AI 혁신의 실험실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동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유전자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연구하는 과학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스타트업 청년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인재들. 이들이 바로 한동훈이 믿는 대한민국 저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DNA에는 '할 수 있다'는 유전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민족, IMF 위기를 금 모으기로 극복한 민족, 코로나 팬데믹에서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민족.

우리는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는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한동훈이 그리는 제2의 도약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흐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자본에도 국적이 있는 시대"에, 미국과 기술 동맹을 맺고, 일본, 호주 등과 '경제NATO'를 창설하여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는 낡은 이념 논쟁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과거에 얽매어 서로를 헐뜯는 동안, 세계는 빛의 속도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두고 "친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본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자고 말합니다.

한동훈은 우리 손을 잡고 미래를 가리킵니다. "저기 새로운 기회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곳으로 갑시다." 그의 눈빛은 1970년대 영일만의 기적을 꿈꾸던 그 뜨거움과 닮아 있습니다.

## 27장 3·4·7 비전, 숫자에 담긴 희망

정치인의 언어는 때로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더 나은 내일", "함께 가는 미래", "국민 행복"... 아름답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말들. 선거가 끝나면 잊히는 약속들.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또 그 말이야?" 하지만 작년 대선 기간 중 한동훈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4·7 비전'입니다. 이 숫자들 속에는 그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검증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 '3'은 'AI G3'를 의미합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거대 강국(G2)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AI 기술력으로 세계 3대 강국(G3)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반도체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우수한 두뇌와 창의성을 더한다면, AI G3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없이는 AI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됩니다. 우리는 이미 AI 시대의 핵심 열쇠를 쥐고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로 세계 3위의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을 한 단계 더 높이려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AX(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손가락을 얹느냐, 손가락만 빠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해 200조원을 투자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 생태계를 세워다시 성장해야 합니다."

둘째, '4'는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늪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봉투는 제자리걸음인 답답한 현실. 한동훈은 이 벽을 깨뜨리고 싶어 합니다. 4만 달러시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4만 달러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녁 6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여행을 갈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 학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한동훈이 약속하는 4만 달러는 그런 풍요로운 일상의 회복입니다.

셋째, '7'은 '중산층 70% 복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동훈 비전의 핵심이자 가장 따뜻한 부분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허리를 받치고 있는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1980년대,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면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벌이를 해도 서울에 집한 채 사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걱정에 허리가 휩니다. "노력해도 안 돼"라는 절망이 청년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무너진 사다리를 다시 세우려 합니다. 전체 국민의 70%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회. 실패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사회. 그가 꿈꾸는 중산층 70%의 세상은 바로 그런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산층은 경제의 허리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도 중산층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 '3·4·7 비전'은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할 목표입니다. 한동훈은 칠판에 적힌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을 봅니다.

3·4·7. 이 숫자를 외워 두십시오. 이것은 한동훈이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장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 3·4·7 비전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계획(200조 원)과 실행 방안(미래전략부 신설, 규제 혁파)으로 뒷받침되는 실사구시의 청사진입니다. 그는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향해 국민과 함께 뚝뚝뚝 걸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성장이 중요합니까, 복지가 중요합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질문을 두고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보수는 성장을 외치고, 진보는 분배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장은 복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성장은 소수 재벌만 잘 사는 성장이 아닙니다. AI 혁명을 통해 얻은 거대한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성장입니다. 그는 이것을 '우상향하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나라 전체의 부가 커지면서, 그 혜택이 가장 약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물처럼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수는 성장, 진보는 복지에만 치중하다 보니 중산층은 소외돼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중산층을 전면에 내세웠던 보수 정당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그 국민이 행복한가요? 국민이 행복하려면 서민을 중산층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한평생 복지계좌'입니다.

지금 우리의 복지 제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급여, 노령연금... 수십, 수백 가지의 제도가 흩어져 있어서, 정작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평생 복지계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내 인생의 든든한 지갑'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플 때, 실직했을 때, 은퇴했을 때, 국가가 그 계좌에 필요한 돈을 채워줍니다. 내가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증명 서류를 떼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실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용센터에 가서 줄 서고, 서류 내고, 몇 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복지계좌가 있으면? 다음 날 아침, 계좌에 실업급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가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복잡한 신청서 없이, 굴욕적인 증빙 없이.

이 계좌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기반'입니다.

생활비 걱정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말합니다.

"강자에게는 엄격하게, 약자에게는 따뜻하게." 이것이 그의 '강강약약' 철학입니다. 성장을 통해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 힘으로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 '한평생 복지계좌'는 그 따뜻한 철학을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는 근로소득세 인하,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감세정책과 함께,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를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을 "가짜 복지"라고 비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진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한동훈의 약속입니다. 선거 때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이 나옵니다. 달콤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니까?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한동훈은 이런 '사탕 정치'를 거부합니다.

그는 "AI 혁명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이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세수로 확보되어 복지재원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기술 혁신의 혜택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AI는 분명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엄청난 부를 창출합니다.

한동훈은 그 부가 소수 기업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가 만든 부를 국민의 복지계좌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AI 혁명의 과실은 특정 기업의 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복지 계좌'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한동훈이 약속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입니다. 그는 성장을 통해 공간을 채우고, 그 공간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푸는 따뜻한 경제 대통령을 꿈꿉니다.

## 28장 수동 성당 복사 한동훈

1980년대 초반 어느 일요일 아침,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성당의 종소리가 고즈넉한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하얀 제의를 입은 한 소년이 제단 앞에서 미사를 돕고 있습니다. 바가지 머리에 천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이 아이는 '복사'라고 불립니다. 미사에서 신부님을 돕는 어린 봉사자입니다.

소년은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진지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어린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 기억은 서울의 화려한 거리가아니라 충청도의 소박한 풍경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발령으로 가족은 청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당시 세계적인 마그네틱 레코딩헤드 제조회사인 AMK의 한국 법인 대표였는데, 공장이 청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에서의 삶은 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그는 청주 수동성당에서 '제라드 해먼드' 신부님을 도와 복사로 활동했습니다.

한국 이름 '함제도'로 불린 이 푸른 눈의 사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와서 북한 선교와 결핵 퇴치 사업에 평생을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한동훈에게 함 신부님 곁에서 미사를 돕는 일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절을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인공 토토에 비유했습니다. 영사기사 아저씨 곁에서 영화를 배운 토토처럼, 그도 함 신부님 곁에서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부친 역시 어린 시절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다녔을 정도로 신심이 깊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은 그가 유년 시절부터 '공공선'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토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90세가 넘는 함제도 신부님을 다시 찾아뵙고 옛 추억을 나누는 것도, 그가 화려한 엘리트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강남 8학군'의 삶으로 진입합니다. 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 입학하는 그의 이력은 대한민국 주류 엘리트의 전형적인 코스입니다. 학창 시절 그는 3년 내내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았고 반장을 도맡아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큰 키에 하얀 얼굴, 뛰어난 성적 덕분에 이성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동창들이 기억하는 한동훈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류 질서 속에 있으면서도 부당함에 맞서는 '반골 기질'을 가진 아웃사이드러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학 가는 모범생 친구에게만 롤링페이퍼를 써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반장이었던 한동훈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 친구만 해줘야 합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열네 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형평성'이라는 단어. 그것은 훗날 그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한 가치의 씨앗이었습니다.

소위 '문제아'나 성적이 낮은 친구들과도 허물없이 어울렸습니다. 불량한 태도의 아이들도 한동훈이 반장인 반에서는 그를 인정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는 권위나 계급에 굴하지 않고, 수평적인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만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대학 시절 그는 서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의 1기 부원으로 활동하며 플루트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법대생이면서도 예술적 감수성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그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해 동기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술자리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익혔습니다.

주류에 속해 있으면서도 주류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경계인'의 감각. 이것이 훗날 그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사랑했지만, 조직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한 아웃사이드'였습니다.

## 29장 품 잡지 않는 '물저씨'

2024년의 대한민국 거리를 걷다 보면, 붉은색 스카프를 매거나 뿔테 안경을 쓴 50대남성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이른바 '한동훈 현상'입니다.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1973년생인 한동훈은 한국 사회의 'X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는 산업화의 과실을 누리며 성장했고, 대학 시절 민주화 이후의 자유로운 문화적 세례를 받은 세대입니다. 정치권에서 586 세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을 때, 70년대생 한동훈의 등장은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선 '시대 교체'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에서 1992년 서태지의 등장을 언급했습니다. "세상이 계단식으로 바뀌는 혁명적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서태지 등장 당시 기성 평론가들의 혹평과 대중의 열광을 목격하며 시대가 변하는 것을 체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동훈에게 붙은 '영피프티(Young Fifty)'라는 수식어는 단순히 나이가 젊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와 허례허식을 거부하고, 실용과 취향을 중시하는 새로운 중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합니다.

그는 국회 출석이나 공식 석상에서 뿔테 안경, 스카프, 뒤통이 잡힌 넥타이, 잘 재단된 수트 등 세련된 패션 감각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착용한 올리버 골드스미스나 커틀러 앤 그로스 안경, 1970년대 빈티지 시계 등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며 품절대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타일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가 평소 추구해 온 '품 잡지 않는' 자연스러움의 발로입니다.

"옷 같은 거 사는 건 어릴 때부터 다 제가 사서 입었습니다."

그의 감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는 '물저씨'입니다. '물(Mule)'은 국내 최대의 중고 악기 거래 사이트입니다.

한동훈은 이곳에서 기타나 앰프 등을 사고파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 중고 악기 사이트에서 직거래를 한다?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중시하는 기존 고위 공직자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는 얼굴이 알려지기 전까지 직접 직거래 현장에 나가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방구석 기타리스트"라고 칭하며, 거실에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기타를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퇴근 후에는 조직의 부품이 아닌 온전한 개인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취미에 몰입하는 현대인의 이상향을 보여줍니다.

그는 술을 체질적으로 한 잔도 못 마시는 대신,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시며 회식 문화보다는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의 술자리에 가서 탬버린을 쳐 줄 정도로 다정다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조직 내 사교보다는 업무적 본질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X세대의 직업관을 반영합니다.

그는 블랙 셔츠를 즐겨 입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양이 털이 많이 붙어서 떼기 귀찮아서요."

꾸밈없고 솔직한 화법입니다. 그의 집에는 고양이가 있고, 그는 검은 옷에 붙은 털을 떼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피프티'로서의 한동훈은 정치적으로도 기존 보수의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갈증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코드로 소통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리더입니다. 그는 권위적인 훈계 대신 "동료 시민"이라는 수평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2025년 4월, 그는 유튜브 라이브 '보통의 하루'에서 새우깡을 먹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장관을 지내고 당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 과자를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영피프티' 한동훈의 진면목입니다.

한동훈의 스타일과 취향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그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정치 철학이 생활 속에 체화된 증거입니다.

## 30장 비틀즈에서 크라이닝까지

한동훈의 집 서재, 혹은 그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는 항상 음악이 흐릅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단한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도피처이자, 다시 세상과 싸울 힘을 얻는 주유소입니다.

음악 사랑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문 시간에 '오디오 갖고 놀기'라는 제목의 글을 쓸 정도였습니다. 35년 지기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리스트를 훑어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비틀즈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흐르다가, 갑자기 지미 헨드릭스의 거친 일렉트릭 기타소리가 공간을 찢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강렬한 록 스피릿에 심취하다가도, 어느새 존콜트레인의 난해하고도 깊은 색소폰 연주에 빠져듭니다.

2024년 추석 특집, 그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일일 DJ로 출연하여 자신의 '인생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선곡표는 그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그는 톰 웨이츠의 'Way Down in the Hole'을 소개했습니다. 이 곡이 삽입된미국 드라마 '더 와이어(The Wire)'를 자신의 인생 드라마로 꼽았습니다. 거칠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드라마의 주제 의식은 검사로서 치열하게살아온 그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미 헨드릭스의 'Bold As Love'는 그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던 시절의 고독과 위안을 상징합니다. 그는 당시 기타 연습을 하며 이 곡을 자주 연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인사 발령 후 낯선 도시에서 홀로 지내던 밤, 앰프로 연결한 기타에서 흘러나오는 지미 헨드릭스의 선율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권력에 밀려 쫓겨나듯 내려간 그 시절, 그는 기타 줄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레드 제플린, 비틀즈, 도어스 등 1960-70년대 록 음악에 대한 그의 애정은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이 주는 본질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비틀즈의 'Come Together'를 마지막 곡으로 선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즈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사랑하며, 'I'm Old Fashioned'라는곡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구식(old-fashioned)"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향하는 그의 성향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한국 인디 밴드 크라이닝의 '명동콜링'을 선곡하며 1990년대 흥대 클럽 '드럭'을 드나들던 청년 한동훈의 추억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법대생이었지만 밤이면 흥대 인디 씬의 에너지를 흡수하던 그 시절. 형식과 권위를 거부하는 펑크 록의 정신이 그의 DNA에 새겨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 '저녁 노을에(Im Abendrot)'의 다양한 버전을 수집한다는 사실은 그의 클래식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섬세한 감수성을 증명합니다.

"좋은 음악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린 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영국 밴드 Nothing But Thieves의 'Lover, Please Stay'까지 소개하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디오헤드의 'Creep', 레너드 스키너드의 'Free Bird'도 그의 애청곡 목록에 있습니다.

2024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미국 뮤지션 '벡'의 공연을 관람한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 락 페스티벌의 관중석에서 있는 모습. 그것은 그가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영피프타임'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악은 그가 복잡한 정치 현실과 격무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게해주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록 음악에는 '저항'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재즈에는 '자유'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한동훈이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핏속에 로큰롤의 저항 정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 31장 중고거래 시장에 종종 나타나는 한동훈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나면 다시 '물저씨' 생활로 돌아갈까 생각합니다." 2025년 4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동훈이 한 이 말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저씨'. 이 단어는 국내 최대 악기 중고 거래 사이트인 '물(Mule)'에서 활동하는 중년남성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한동훈은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와 재즈마스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고 앰프나 이펙터 등을 수집하고 거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단순히 악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는 직거래의 과정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얼굴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 소소한 취미 생활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중고 거래를 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네고(할인)를 너무 심하게 요구해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반을 깎아 달라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수행원을 시키거나 신분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거래 현장에 나갔고, 터무니없는 가격 흥정에 당황해하면서도 이를 유머러스하게 받아넘겼습니다.

이 일화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기타 실력에 대해 "잘은 못 치고 방구석 기타리스트 수준"이라며 겸손해합니다. 그러나 부산 근무 시절 지미 헨드릭스의 곡을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일화나, 슬라이드 기타 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한 식견과 실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중고인데 좀 깎아달라고 하지 그랬어?"

한동훈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파는 건데, 내가 그걸 깎자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그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곤궁함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는 얼굴도 모르는 중고 거래 상대방에게조차 '공정'과 '존중'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기타들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타인의 사연과 가치를 존중해준 증거들입니다.

밤늦은 시간, 그가 앰프에 기타를 연결하고 조용히 줄을 튕길 때, 그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잊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공적인 '한동훈'이 아닌 사적인 '한동훈' 으로서 숨 쉴 수 있는 해방구. 그것이 그에게 기타와 '물'입니다.

"네고는 안 됩니다"라는 그의 단호하면서도 귀여운 항변은,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이 취미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 32장 모비딕, 오에 겐자부로

"제 인생의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한동훈은 여러 인터뷰에서 주저 없이 『모비딕』을 꼽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소설을 거대한 고래에 대한 복수극으로 기억합니다. 한동훈의 독법은 다릅니다.

그는 에이허브 선장의 광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에 주목합니다. 고래잡이 배 '피쿼드호'의 선원들처럼,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파국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길을 가는 모습에서 그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2023년 8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의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그에게 꼬부기 스티커와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린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응원의 말. 한동훈은 바쁜 와중에도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바로 『모비딕』이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용으로 각색된 판본이었습니다. "이 책은 고래를 잡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훗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관직을 내려놓은 직후의 어수선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어린 팬의 손글씨 편지에 답장을 쓰고 자신의 인생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 일화가 팬 카페를 통해 공개되자, 『모비딕』은 교보문고와 예스24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서재에는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의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개인적 체험』, 『하마에게 물리다』. 뇌 기능 장애를 가진 아들 히카리와의 삶을 다룬 이 작품들을 통해, 그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태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에 선생 부부는 아들 히카리를 돌보는 것이 인생의 큰 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들도 그의 애독서 목록에 있습니다. 카버의 소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숨겨진 상실과 고독을 건조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카버의 작품 중 편집자 고든 리쉬가 손을 댄 '편집본'을 더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간결하고 압축적이며 짙하게 옵니다."

"검찰 수사는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지론과 맞닿아 있는 문학적취향입니다.

그의 좌우명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의견이다."

팩트와 진실을 중시하고 세간의 평가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의 냉철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변호사 '시드니 카튼'을 좋아해 아이디로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드니 카튼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단두대에 오르는 자기희생의 캐릭터입니다. 그가 왜 이 인물에게 끌렸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나의 감성과 주파수가 맞는 것을 찾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문학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훈련장입니다.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않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법전의 조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 할 때, 그는 언제나 문학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에이허브 선장의 광기만이 아닙니다. 거대한운명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한동훈이 『모비딕』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에게 그 책을 선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33장 고양이와 컵라면

2024년 어느 늦은 밤, 총선 유세를 마친 한동훈은 수서역 인근 편의점에 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컵라면 하나와 제로콜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려온 피로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좌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점심은 차 안에서 먹은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대중은 흔히 냉철한 논리와 날카로운 수트 핏, 그리고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우던 '투사'의 이미지를 먼저그립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최연소 법무부 장관.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그를 상상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 '자연인 한동훈'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거창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두 마리의 고양이와 컵라면, 그리고 제로콜라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고양이 집사'입니다.

2024년 인스타그램을 처음 개설했을 때, 그가 올린 첫 번째 게시물의 주인공은 정치인한동훈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털을 가진 '타니'와 긴 털의 '양이'라는 이름의 두 반려묘였습니다. 타니는 몸무게가 8~9킬로그램에 육박하는 거구입니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크지만 의외로 운동신경이 뛰어난 친구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반면양이는 4킬로그램 남짓의 고양이로, 유기묘 보호소에서 입양해 온 친구입니다. 체급차이가 두 배나 나지만, 이 둘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고양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니가 덩치는 크지만 양이를 챙겨주고, 간식을 먹을 때도 양보할 줄 압니다." 그리고덧붙였습니다. "타니는 두세 배만 더 크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농담 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퇴근 후 침대에 누우면, 이 두 마리의 고양이는 약속이나 한 듯 그의 곁으로 파고들어잠을 청합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걱정 없는 삶, 자유로운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피곤할 때 곁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털 뭉치들에게 밥을챙겨주고 화장실을 치워주는 평범한 집사로 돌아갑니다.

평소 즐겨 입는 세련된 수트 핏 뒤에는 남모름 고충도 있습니다.

블랙 셔츠를 잘 입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양이 털이 많이 붙어서 떼기가 너무귀찮기 때문"입니다. 흰 털을 가진 양이의 흔적은 검은 옷에 치명적이라며 옷어넘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완벽주의자 검사가 아닌 허술하고 다정한 '집사'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식성은 소탈하다 못해 '초딩 입맛'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은 전통적으로 '폭탄주'로 대변되는 음주 문화가 강한 곳입니다. 밤샘 수사 후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이 일종의 의례처럼 여겨지던 문화 속에서, 한동훈은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체질적으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그는 회식 자리에서도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과거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에 빠져 좋은 와인을 마셔보려 했다가 그대로 뺏어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로콜라 갖다줘라"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대통령조차 그의 체질을 알고 배려한 것입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인생이 조금 더 다채롭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금정 보궐선거 승리 후 만난 어르신들이 권하는 막걸리를 거절하기 어려워 조금 마셨다가 올라오는 길에 고생했다는 일화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그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의 '소울 푸드'는 컵라면입니다.

선호하는 라면은 구체적입니다. '도시락면'과 '너구리 매운맛'입니다. 뚜껑이 있어 국물이 튀지 않는 도시락면의 실용성, 얼큰하게 속을 풀어주는 너구리의 맛. 밤샘 수사가 일상이던 검사 시절, 허기를 달래주던 그 맛이 여전히 그에게는 최고의 위로인지도모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너구리에는 반숙 계란이 최고"라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과자 취향도 확고합니다. 새우깡을 먹을 때는 일반 새우깡과 매운 새우깡을 섞어 먹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당이 떨어질 때면 바나나맛 우유를 집어 듭니다. "어릴 때부터 내 옷은 내가 사 입었다"고 말할 정도로 취향이 확실한 그이지만, 먹는 것에서만큼은 격식이나 화려함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맛을 추구합니다.

고양이와 컵라면, 그리고 제로콜라. 이것들은 한동훈이 복잡하고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입니다.

한동훈은 "동료 시민들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키겠다"고 늘 강조합니다. 어쩌면 그가 지키고 싶은 그 '보통의 하루'는, 그 자신이 퇴근 후 고양이들의 골골송을 들으며 컵라면 한 그릇을 비우는 그 평온한 저녁 시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34장 엘리베이터, 우산 그리고 의전

2022년 5월, 법무부 청사 앞.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장관의 차량이 도착하자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차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던 직원들 앞에서, 한동훈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취임 직후, 그는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제 차 문을 열어주는 의전은 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는 법무부 내부망에 공지되었습니다. "장관이 원치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의전'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권위는 차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무게와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직원들에게 또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장관님'이라는 호칭을 빼고 그냥 '장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보고서 등 문건에서도 간부 호칭에 '님'자를 붙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권위를 빼라"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한 법무부와 검찰 조직문화에 균열을 내는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38년간 유지되어 온 교정시설의 '깨알 갑질'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상급자가 요청하면 악수를 해야 한다는 조항, 상급자보다 먼저 퇴근하면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강강약약(強強弱弱)' 철학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관이나 당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직원들이나 동료들에게 "먼저 타라"고 손짓하며 직접 '열림'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다음번에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세심함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높은사람'이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 그것이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2023년 6월의 어느 비 오는 아침. 국회 출근길에 포착된 한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고위 공직자가 출근할 때면 수행비서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그러나 그날 한동훈은 직접 우산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기울여 옆에 선 보좌진에게 씌워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수평적 인식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그의 배려는 빛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질의를 할 때면, 그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김 의원이 발언대까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을 위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알리는 이 짧은 멘트.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는 공감 능력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려는 노력.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강강약약'의 실천이었습니다.

"강자에게는 더 엄정하고, 약자에게는 더 따뜻해야 한다." 그는 이 원칙을 말로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검사 시절 재벌 회장과 국세청장 같은 '강자'들을 수사할 때는 타협 없는 '저승사자'였습니다.

한동훈은 그 어떤 거대 권력 앞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료와 부하 직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앞에서는 기꺼이 우산을 들어주고 버튼을 눌러주는 '이웃'이기를 자처했습니다.

2024년 국민의힘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보수의 실질은 강강약약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삶 전체를 통해 보여준 행동의 요약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보여준 이러한 '탈권위'의 행보는, 끈대 문화에 지친 젊은 세대와 수평적 소통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권위는 지위에서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이 엘리베이터 버튼과 빛속의 우산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 35장 약자에 대한 시선

"악인(惡人)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인터뷰에서 던져진 이 질문에, 한동훈은 주저 없이 대답했습니다. "악인은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간명한 정의 속에 그의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권력형 비리를 파헤쳤는지, 왜 '약자'가 아닌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에게 악인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이용하고 짓밟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맞서 싸워온 적이었습니다.

그는 "약자의 눈으로 공동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붙습니다.

"약자가 강자보다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사회가 약자를 챙겨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동정이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공공선'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의 행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4년 1월의 어느 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한쪽에서 작은 오찬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원도, 당 간부도 아니었습니다. 당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경비원, 건물 관리원들이었습니다. 역대 보수 정당 대표 중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도시락이 아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춥잖아요."

그의 말에 이어 즉석에서 약속이 나왔습니다. 방한용 패딩 조끼 지급, 필요 비품 지원.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료 시민'들의 존엄을 챙기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조치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패딩 주고 냉장고 갈아준대요."

명절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관례적으로 보내던 당 대표 명의의 고가선물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연탄 7만 2천 장이 구매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직접 지게를 지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올랐습니다. 연탄을 나르며 얼굴에 검댕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이 "쇼"라고 비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연탄을 날랐습니다. 정치인들끼리의 선물 교환에 쓰일 국민의 혈세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의 결정은 정치권의 낡은 관행을 깨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추석에는 선물 예산 5천만 원이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포장했습니다. 반찬을 담고, 포장 용기를 닫으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담론 싸움이 아니라, 당장 오늘 굶주릴지 모르는 아이의 밥상을 챙기는 것이라고.

그의 시선은 늘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된 영웅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만난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 행사가 끝난뒤에도 한동훈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격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사자 유가족을 위한 동화책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무부시스템을 정비한 것은 "국가는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는 그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한동훈의 약자에 대한 시선은 시혜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려는 '책임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룰을 어기며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약자를 위한 그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걷는 정치의 길은 언제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향해 있습니다. 연탄을 지고 오르던 골목길, 결식아동에게 건네던 도시락, 청소원과 나누던 밥 한 끼. 그 작은 행동들 속에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 36장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치판은 말의 전쟁터입니다.

날 선 독설과 조롱, 막말이 오가는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큰 소리로, 더 자극적인말로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고들 믿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시간이면 고성이가 오가고,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안경 쓴 깡패", "독사 같은 놈". 한동훈을 향해 쏟아진 비난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난 어느 날. 방금 전까지 그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던야당 의원에게 한동훈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이고 예의 바르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대 의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격앙된 분위기와 전혀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을 때도 그는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싸우더라도 룰을 지키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않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열하게 나올 때, 우리도 똑같이 저열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한동훈의 말하기 방식은 '솔직함'과 '겸손'을 무기로 합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와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에 맞서 그는 논리로 대응합니다.

"저는 다 걸겠습니다. 위원님은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그의 반격은 촌철살인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논리. 그것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논쟁의 현장이 끝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터뷰나 연설 끝에 그는 습관처럼 이 말을 덧붙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짧은 세 마디는 상투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부족한 점에 대한 성찰, 그리고 동료 시민들을 향한 애정을 담은 표현입니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이 세 마디를 "도덕적인간의 기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4·10 총선 패배 후,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탓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 탓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성 정치인들과 대조를 이루는 태도였습니다.

유머러스한 면모도 있습니다. 중고 악기 거래 사이트 '물(Mule)'에서의 일화입니다. 기타 이펙터를 사러 직거래에 나갔는데, 얼굴이 알려진 뒤라 상대방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상대방이 할인을 요구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고(할인)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웃으며 거절했지만, 결국 꺾아주고 말았다는 후문입니다. 공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사적인 거래에서도 상식과 공정을 지키려는 사람. 동시에 완고하지만은 않은 인간적인 매력. 이 일화에서 우리는 그의 양면을 발견합니다.

한동훈은 "말은 날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정치인은 국민을 가르칠 수 없다. 국민에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은 화려한 수사나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인간적인 품격. 그것이 그의 언어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2025년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적 결정에 사심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평범한 이 세 마디 말이 한동훈의 입을 통해 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됩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가진 사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인간한동훈'의 진짜 얼굴입니다.

청주 성당에서 복사로 봉사하던 소년. 홍대 클럽에서 펑크 록에 심취하던 청년. 중고기타를 직거래하며 "네고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물저씨'. 초등학생에게 『모비딕』을 선물하는 독서가.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인간 한동훈'이라는 퍼즐을 완성합니다.

그는 화려한 이력서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기타 줄을 튕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가 계엄의 밤에 망설임 없이 국회로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이러한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로큰롤의 저항 정신. 문학에서 배운 공감 능력. 그리고 청주 성당에서 배운 공공선의가치.  
그것이 '인간 한동훈'의 뿌리입니다.

## 에필로그 광야의 겨울, 그리고 다가올 봄

2026년 2월의 서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채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당에서 쫓겨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안타까움을 품은 채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광야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겨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동훈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춥습니다. 바람이 거셉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 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형편상 함께 나서지는 못하지만, 가슴속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를, 그의 수행이 마침내 열매를 맺기를,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청주의 성당에서 복사로 봉사하던 소년. 서울대 법대에서 묵묵히 공부하던 청년. 검사로서 강자의 불법 앞에 굴하지 않던 젊은 법조인. 네 번의 좌천에도 원칙을 꺾지 않던 수사관. 그리고 자기 당의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막아선 여당 대표.

그의 삶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결과가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편이 아닌 원칙을 택하는 것.

2024년 12월 3일 밤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날 한동훈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모호한 말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우정을,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당내 입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엄 선포 23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년 우정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발탁해준 은인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반헌법 정신이 아직도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올바름을,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한 사람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나라를 지키는 결단을 "반역"으로 뒤집어씌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망령은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잘못된 생각도 눈을 뜰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무엇이 옳았는지,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는지, 역사의 거울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생각과 판단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계엄의 밤, 누가 국회로 달려갔는지. 누가 헌법을 지켰는지. 누가 유혈 사태를 막았는지. 지금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 기억이 흐려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 편에 섭니다.

저는 한동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대한민국은 그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강강약약의 정신으로 강자의횡포를 막고  
약자를 보듬는 지도자. AI 혁명의 파도를 타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킬 비전 있는 리더.

성 안의 우리는 그 발걸음을 지켜보며 기도합니다. 그의 길에 빛이 함께하기를. 그의고난이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돌아오기를.

창밖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가장 추운 겨울에 핏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깝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리겠습니다.

봄이 오기를. 광야를 지나 그가 돌아오기를. 따뜻하고 번성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그날이  
오기를.

한동훈.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봄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026년 2월 김경진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

© 2026 김경진. All rights reserved.